
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시	배포	2021.7.13.(화)	

기관명	책 임 자			담 당 자
금융위원회	은행과장	김연준	(02-2100-2950)	송용민 사무관 (02-2100-2953)
	금융정책과장	이동훈	(02-2100-2830)	김수빈 사무관 (02-2100-2833)
	구조개선정책과장	손성은	(02-2100-2910)	이호영 사무관 (02-2100-2914)
금융감독원	은행리스크업무실장	박상원	(02-3145-8350)	임종건 부국장 (02-3145-8360)
	거시건전성감독국장	김준환	(02-3145-8170)	김우현 팀 장 (02-3145-8190)
	은행감독국장	이준수	(02-3145-8020)	김옥배 부국장 (02-3145-8022)

제 목 :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

◆ 금융위원회는 **전년과 동일하게** 10개 은행·은행지주회사*를 **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(D-SIB)**로 선정하였습니다.

*** (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) 신한지주, KB지주, 하나지주, 우리지주, 농협지주 (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) 신한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**

○ 해당 은행·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'22년 중 1%p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.

◆ 올해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를 **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(D-SIFI)**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.

○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.

- **D-SIB**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) : 「은행법」, 「금융지주회사법」 등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으로 '16년부터 매년 선정
- **D-SIFI**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) :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올해 처음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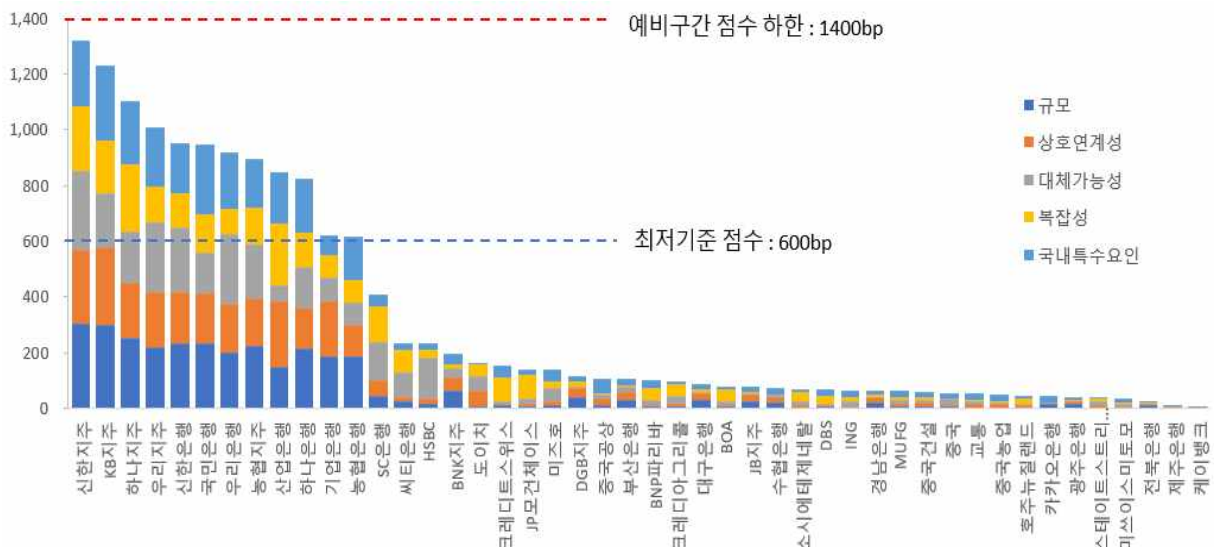
1 D-SIB 및 D-SIFI 선정 결과

- '21.7.13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*(D-SIB) 및 금융기관**(D-SIFI)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.
- (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) 신한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
 - (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) 신한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
 - (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)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와 동일
- * 기존의 "시스템적 중요 은행·은행지주회사"라는 용어를 "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"로 변경
- **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(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)

<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>

- ◇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하나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, 농협금융지주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이 D-SIB 선정 기준을 상회
- 다만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-SIB에서 제외(「은행업 감독규정」 제92조, 제93조)

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



2 향후 계획

-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'22년중 1%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됩니다.

'22년 D-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(%)

	기본 적립비율	자본보전 완충자본 ¹⁾	경기대응 완충자본 ²⁾	D-SIB 추가자본	⇒	적립필요 자본
보통주비율	4.5	+2.5	+0.0	+1.0		8.0
기본자본비율	6.0	+2.5	+0.0	+1.0		9.5
총자본비율	8.0	+2.5	+0.0	+1.0		11.5

- 1)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.5%의 완충자본 부과
2) 신용팽창기에 최대 2.5%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(현재 0%)

-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.

*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(금산법 제9조의3)

1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제도

- 금융안정위원회(FSB)와 바젤위원회(BCBS)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 은행·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음
- 금융안정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(G-SIB)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%~3.5%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 중
-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(D-SIB)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·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
-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'16년부터 D-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며,
- '21년도(적용연도 기준)에는 10개 은행·은행지주회사를 D-SIB*으로 선정하여 추가자본**을 적립토록 하였음

* D-SIB지주(5개사) : 신한지주, KB지주, 하나지주, 우리지주, 농협지주

D-SIB은행(5개사) : 신한은행,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, 농협은행

** (16년) 0.25% → (17년) 0.50% → (18년) 0.75% → (19년 이후) 1.0%

<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규제 개요 >

구분	G-SIB	D-SIB
정의	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(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)	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)
평가주체	금융안정위원회(FSB)	각국 감독당국
대상	글로벌 대형은행	국내 대형은행
추가적립자본	1.0~3.5%	1.0~2.0%

2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개요

□ **(평가대상)** 은행지주회사, 은행* 및 외은지점('20 회계연도말 총자산 5조원 이상)을 평가대상에 포함

* ① 수출입은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

②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등을 감안하여 D-SIB 추가자본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

③ 인터넷전문은행 및 이를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는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†

† '17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는 '20년부터 평가대상에 포함

□ **(평가부문)** 5개 평가부문을 동일 가중치로 평가

평가 부문	D-SIB 평가지표	가중치
1. 규모(20%)	총익스포저	20%
2. 상호연계성(20%)	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	6.7%
	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	6.7%
	증권 발행규모	6.7%
3. 대체가능성(20%)	원화결제규모	6.7%
	외화결제규모	6.7%
	보호예수자산	6.7%
4. 복잡성(20%)	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	10%
	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및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*	10%
5. 국내 특수요인(20%)	외화부채	10%
	가계대출	10%
총 합	5개 부문 11개 지표	100%

* 2018.1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9호 시행으로 명칭 변경(변경전 : 당기손익인식 증권 및 매도가능금융자산)

□ **(평가점수)** 개별 은행·은행지주회사의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지표별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산출(「시장점유율」 개념, 총점 10,000점)

○ 총점 600점 이상을 D-SIB으로 선정하여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

3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 제도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,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체계상 혼란이 초래된 이후
 - 국제사회는 G20을 중심으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,
 - 이에 금융안정위원회(FSB)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권고
- 금융위원회는 금산법에 따라 금년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(D-SIFI)을 선정*하고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의무를 부여
 - *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·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(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)
 - D-SIFI는 금융위원회로부터 D-SIFI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
- 금융감독원은 D-SIFI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*(Recovery plan)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**
 - * 금융감독원은 D-SIFI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
 - ** D-SIFI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
 - 예금보험공사는 D-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부실정리계획*(Resolution plan)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*
 - * D-SIFI가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
-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·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*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·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
 - * 금융위원회 위원 1인(금융위원장 지명) 및 4명 이내의 금융전문가로 구성
 -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금융위는 기간을 정하여 D-SIFI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완 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